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전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한 직장, 노사와 함께 만들어요

전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합의한 376개 안 조인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전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그동안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한 376개 안에 대해 조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책무 여건 마련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와 임신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금지 등을 통한 일하는 부모의 육아여건 조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운영을 통한 조합원의 안전·건강 유지여건 마련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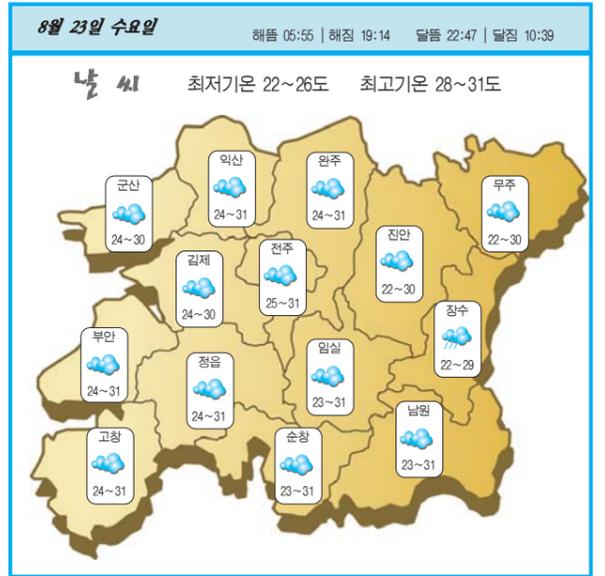
동조합 운영위원회 확대, 노사가 소통하는 조합원 교육 실시와 노동조합 유·무급 전임확대를 통한 노동활동이 자유로운 조합 활동 보장 △퇴직준비 휴가 및 연차일수 확대를 통해 퇴직자 인생 2모작 설계 여건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5년에 총 512개 항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한

후 4차례의 예비교섭, 42차례 실무협의회와 77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여건 조성 등에 합의해 노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

9월 1일자 36명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 4시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9월 1일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36명(유치원 2명, 초등 18명, 중등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게 되는 신규교사 36명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9월 1일부터 도내 유·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

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교직생활에 임하여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신규교사들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사로서 출발하는 자리를 감동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교사 2명, 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16명 등 총 36명에 대한 2017년 9월 1일자 신규교사 인사를 발표하였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2016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개최

박사 114명 · 석사 331명 · 학사 1116명 등 1561명 졸업

전북대학교 2016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학부위원, 이윤규 총동창회장, 졸업생 가족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14명, 석사 331명, 학사 1,116명 등 총 1,56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철학자 니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듯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투철한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세계와 자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대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정해은 기자

8월 전북교육아카데미 31일 오후 특강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달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알파고 이후 생각력이라는 주제로 오는 31일 오후 7시 2층 강당에서 갖는다.

도교육청은 이번 아카데미에서 대기업 광고와 주간지 등에 카툰을 연재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를 초청했다.

최 대표는 특강에서 "알파고 즉 인공지능이 못 하는 일을 본능적으로 간파해 내고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미래 성공의 관건이자 창의"라고 이야기 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벤처기업을 운영했고 '물고기속의 물고기' 목이 마르다 등의 책을 펴냈다. 전북교육아카데미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지역 도박문제 치유 거점기관 선정

도박문제관리 전북센터 개소키로

전북대학교가 도내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거점기관에 선정됐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그간 도박 폐해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과 충북, 제주에 지역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운영 주체로 선정돼 지난 18일 설치·운영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대학 내에 전북권을 아우르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를 개소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 재활 서비스 등을 나선다.

운영은 전북대 이영순 교수(심리학)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상담과 치유, 재활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 내 도박문제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치유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교수는 "도박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일이 앞장 설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